

‘그렇지만’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下心



(왼쪽)마르틴 배첼러와 은사인 선경 스님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밝혀

“나는 서양에서 자라고 말을 잘해 궁지에 몰릴 때 마다 난처한 자리를 모면하는 것에 익숙했다. 한국선방에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자주했던 ‘그렇지만’이라는 말 대신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배워야 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 하심(下心)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땀을 건설하는 엔지니어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 전역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던 마르틴 배첼러(Martine Batchelor)는 어릴 때부터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세상을 다 누리고자 했다. 그는 십대 때부터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 저널리스트를 꿈꿨다.

18살의 어린 배첼러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법구경>을 통해 저널리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22세가 되던 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모은 500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오게 된다. 사회의 모순에 분개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한 소녀는 세상이 아닌 자신을 바꾸고자 결심한다.

배첼러는 1975~1985년 10년 간 구산 스님 문하로 출가해 한국에서 비구니로 살았다. 인본주의자였던 배첼러의 부모님들은 “네가 비구니가 된다고? 절대 못해. 그러기에는 너는 너무 독립적이지”라고 말할 정도로 배첼러의 승려 생활에 아주 회의적이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첼러는 한국 선방 스케줄에 따라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배첼러는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공동으로 울려야 하거나, 대중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늦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산보나 강가에 앉아 명상을 즐겼다.

배첼러는 “시간이 지나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화합을 깨는 것임을 깨달았고, 서서히

자신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출가 10년을 낮추다>는 10년 동안 출가 수행자로 살았던 마르틴 배첼러의 삶과 수행 기록물이다. 그가 한국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명상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었다. 책에는 프랑스 인본주의자에서 선 수행자가 되기까지 저자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개인적 삶이 아닌 선경 스님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출가자들의 삶과 수행에 대해 더 면밀히 말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저자는 1980~1982년 동안 은사스님으로 모셨던 선경 스님(1903~1994)을 통해 삶의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된다. 저자는 10년 동안 묵묵히 산중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선경 스님의 인생역정을 충실히 기록해 책에 함께 담았다. 전통 한국과 근대적 한국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했던 선경 스님의 이야기는 저자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줬다.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저자는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생활을 상세히 들려준다. 책은 무엇보다 비구니의 삶과 역사의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한국불교를 여성의 역사,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 한국 비구니와 수행전통의 살아있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가 10년 나를 낮추다 마르틴 배첼러 지음/조은수 옮김/웅진출판 펴냄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염불수행은 광명의 물결

백송(百松)이라 칭송받던 원효 대사를 흠모해 같은 음의 법호를 쓰는 백송(百松) 정목 스님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라는 퍼내 원효 대사의 일심정도 염불수행법을 재해석했다. 스님은 염불수행의 깨달음은 아미타파(阿彌陀波), 즉 광명의 물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염불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마음을 묶는 수행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계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수행이다. 이 깨달음을 법으로 삼아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삶을 가치관으로 실현하는 것이 원효의 일심정도 염불수행이다.

정목 스님은 원효 대사의 저술을 번역하고 강의해 오면서 일심정도 염불수행의 이론 정리와 실천수행을 지속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님은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신심 안심 발심 수행 정정취 회향 일심증득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런 지적은 교학과 수행이 별개인 것처럼 여겨지는 불교 수행 및 신행 체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스님은 염불행자가 대승의 유일한 법인 일심 및 성소작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윤회의 삶을 끊어 버리는 정도에 태어나기를 발원해 염불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정목 스님은 “염불행자가 염불하는 것은 아마존 강의 날개짓 하는 나비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과장으로 자리이타와 전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1만4000원

박기범 기자



33관세음보살의 인연담

불교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존재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가장 인기 있다. 관세음보살은 일반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인 보살로, 수많은 불자들이 전국 곳곳의 관음기도 도량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열렬히 신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중생과 함께 하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존재로, 중생을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현실적이고 현세이익적인 보살이다.

책은 33분의 관세음에 대해 살펴보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며, 그들은 어디에서 유행했고 어떻게 형상화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33분의 관세음보살 화신 이야기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 줬는지에 대한 인연담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방경일 지음/남종진 그림/운주사 펴냄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배우는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기도	법륜	정토
4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5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6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7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8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9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10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비움과소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코이케 스님이 전하는 부처의 말



부처의 말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양명철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1만3000원

부처님 말씀은 좋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말씀한 구절에 감동을 받고, 어떤 이는 위안을 받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말씀은 많다. 그 수도 헤아리기 어렵거나 언젠가 언젠가 읽어야 할지를 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팔만대장경을 날마다 일독(一

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현대어로 추린 <부처의 말>은 이런 고민을 한방에 날려주는 책이다.

책은 <법구경>과 <상윳타니까야> 등 초기 경전을 내용으로 한다. 책은 >화내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업을 바꿔라 >친구를 선택한다 >행복을 알다 >자신을 알다 >몸을 바라보다 >자유로워지다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고통과 기쁨의 원인을 12가지 주제로 나눠 190가지의 말씀을 담고 있다.

책장을 넘겨보면, 책은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지낸다. 인색한 자신을 극복한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등 저자만의 세세한 분류법으로 감동을 주는 경우만을 추려 놓았다.

저자 코이케 스님도 “집위 치위 버릴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어찌나”하고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면 책에 담은 경우들을 읽고 자신을 다잡았다고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책에 담긴 매우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부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단언한다.

스님은 “이 책을 읽는 이의 마음속에 바람이 불거나 혹은 고요함이 생기거나, 깨달음이 생기거나, 엄매이던 것에서 손을 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거나, 분노의 불이 꺼지는 효과가 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학문적 의의”나 ‘깊이’ ‘공부’를 바라고는 이 책을 읽지 말라”는 충고까지 곁들이면서.

저자는 “부처의 말은 가식이 없고 알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면 아무런 울림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여윌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다보면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좋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저자의 의도처럼 무심코 펼쳤을 때, 거기 적혀 있는 부처의 말이 읽는 이의 마음속에 스프링 스며들게 한다. 책에 따라 소리 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는 것은 어떨까?

조동섭 기자

찬덕불교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윤장대 인등

운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자기요: 98원/1kwh

찬덕불교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주름등, 전선시공,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뭇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야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